

일주문

신장병 여학생에 1만원... 성모 범어사 주지는 최근 말기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심보정(18·밀양여고 2년)양에게 10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동방불교대학 부학장... 자월 스님은 6일 태고종립 동방불교대학 부학장에 임명됐다. 스님은 태고종 사회부장,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북한산 나무심기 행사... 송암 동국대 불교대학원 1기 동문회장은 5일 동문 20여명과 함께 북한산 일대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

회암동산에 5백만원 후원... 원택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은 12일 여성소속자 시설인 회암동산을 방문해 5백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동계오론 유치발원 산신제... 원택 원주 구룡사 주지는 8일, 2010년 강원도 동계올림픽 유치 및 국민화합과 국가발전 전을 위한 산신제를 봉행했다.

여여선원 개원 7주년 법회... 정여 범어사 부산포교원 여여선원은 11일 여여선원 큰법당에서 개원 7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대강상도 작품전 개최... 지형 소림정사 주지는 11~15일 제6회 대강상도 작품전을 잠실 호텔 롯데월드전시관에서 개최했다.

부산불교방송 진행 맡아... 금중 해광사 주지는 4월 14일부터 부산불교방송 '금중스님의 참나를 찾아서'를 통해 현대를 살아가는 지혜를 법문한다.

법정사 인터넷 법당 개원... 법정 서울 법정사 주지는 15일 창립 10주년 기념 큰스님 초청법회 및 인터넷 법당 개원식을 가졌다.

지역 노인 40명 경로잔치... 성법 불교여성회장은 11일 안국동 김상사에서 기회동 및 복촌 경로당 어르신 40명을 초청해 경로잔치를 열었다.

“열린 종단 가꾼 일 보람”

내달 초 퇴임 진각종 총리원장 성초 대정사

“4년동안 대과없이 소임을 잘 마친데 대해 종단의 스승님들과 잘 보필해준 부·국장들, 그리고 신뢰를 보내주신 모든 종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7년 5월 진각종 총리원장에 취임, 4년동안 종단행정업무를 총괄해 왔던 성초 대정사(61)가 5월초 퇴임, 일선포교 현장으로 돌아간다.



9일 퇴임기자회견을 가진 성초 총리원장은 임기중 가장 인상있었던 일이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에 ‘98년 10월에 개최한 국난극복참회대법회’라고 답했다. “그날 참회대법회와 함께 국난극복과 통일을 염원하는 ‘올마니반례’를 육자진언비를 하고 있고, 99년에는 스리랑카와 네팔지부를 설립하는 등 국제구호·봉사 활동을 펼쳐 부처님 자비행을 해오까지 확장시켰다. 또 99년과 지난해 두차례에 걸쳐 종단 수뇌부를 이끌고 북한을 방문, 남북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활동으로 민간 남북교류의 시금석을 이루는 주축을 맡았다. 종립 위덕대는 종단의 전폭적인 지원아래 신규대로서는 드물게 최근 대학종합평가에서 최우수대학으로 평가받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특히 성초 원장이 역점을 둔 분야가 ‘문화’로, 문화관광부 지정 2월의 문화인물로 선정된 혜조스님의 사상과 생애를 기리는 창작극악교성극 ‘혜조’, 종조 회당대종사의 생애를 그린 ‘회당’의 공연과 합창제 등을 개최해 불교문화 진흥에도 적극 앞장섰다. “자기 집행부가 내적 역량을 더욱 축적해 시대변화에 따른 종단의 개혁작업에 꾸준히 임하고 진각종이 보다 대중과 친숙한 종단으로 더욱 발전해 가기를 희망한다”는 성초 총리원장은 퇴임후에는 심인당으로 들어가 불교포교에 매진하겠다고 말한다. 이경숙 기자

국난극복 법회 인상적

대북교류·교육·복지 업적

세워 전 종도가 간절하게 민족화합과 통일을 서원했습니다. IMF 경제난을 당해 모든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던 때에 ‘국난극복과 민족화합’이라는 간절한 서원을 담았기에 지난해 남북정상회담 ‘6·15 선언’이 나왔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취임한 97년이 마침 창종 51주년이 되는 만큼 임기초부터 제 2차 종족을 한다는 사명감으로 임해왔다는 성초 총리원장은 온화한 성품 및 불퇴전의 신념과 추진력으로 그동안 기념비적인 많은 업적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그동안 폐쇄적 이미지가 강했던 진각종을 문화 복지 교육 포교 등을 통해 ‘열린 종단’, 대중에게 한층 가까이 다가가는 ‘종단’으로 자리매김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 97년 복지재단을 설립해 현재 16개의 복지시설을 수탁받아 내실있게 운영



은혜사 훈할머니 49재 추모법회

일제치하 종군위안부로 강제 징용됐다가 98년 숨진 훈 할머니의 49재추모법회가 4일 영천 은혜사에서 열렸다. 법회에는 은혜사 회주 법타 스님, 박헌기 국회의원, 이의근 경북지사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법타 스님은 “역사를 왜곡하는등 일본이 아직도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범천 대구지사장



정토사 무량수전 낙성법회

담양 정토사주지 명성은 무량수전 낙성기념 및 문사수대법회를 8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는 석주 칠보사 조실, 벽암 신원사 조실, 한탄 정토사 회주, 김두원 광주전남불교신도회장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100평 규모의 정토사 무량수전은 지난 2월 한국건축가협회로부터 ‘올해의 건축’으로 선정된 바 있다. 주용직 광주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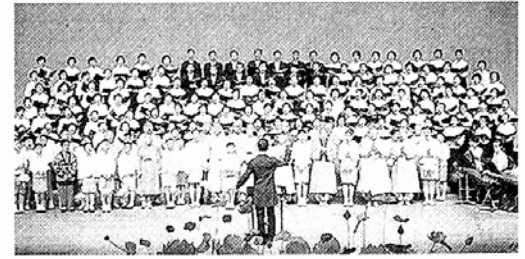
총화종 국운융창기원 수륙대제

총화종(총무원장 남정은)은 3월 29일 김포 문무왕 수증릉 해변에서 8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운융창기원 영산수륙대제를 봉행했다. 이날 수륙대제는 종정 동광 스님의 법어, 홍파관음종 총무원장 스님, 하순봉·김태호 의원, 함종환 한나라당직원불자회장 등의 축사, 이원식 경주시장의 환영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국군불교총신도회 창립 1주년 법회

국군불교총신도회(회장 이종욱)는 6일 창립 1주년을 맞아 용산 국방회관에서 국군장병 무운장구 및 국운융창 기원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성초 진각종 총리원장, 홍파 관음종 총무원장, 원택 조계종 총무부장, 상운 포교원장직무대행과 이종욱, 이현우, 원재원 장군, 김말환, 이희용 법사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광주사암련 불교 합창예술제

광주불교사암련(회장 성희)은 광주 전남 불교합창예술제 ‘불타’를 12일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예술제는 한마음선원어린이합창단의 ‘정신발전의 길’ 합창과 백양사 향림사 증심사 한마음선원 등 지역 5개 사찰합창단으로 구성된 광주전남 보리살타 합창단의 ‘불타’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육군훈련소 입소대대 금강법당 개원

육군훈련소 입소대대는 10일 금강법당 개원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천운 광주 향림사 조실스님, 성초 진각종 총리원장, 상운 조계종 포교원장직무대행과 문판생 훈련소장 및 고현동, 최재필, 강창모 법사와 군장병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개원한 금강법당은 진각종의 후원으로 지어졌다.

여래종 본산 약사사 창건주 숙현당 윤봉순 묘음 대보살 열반 49재 및 사리탑 재막식 법회

(황금 백호사리 1과 오색사리 1000여과 공개)

초대합니다

귀의 삼보하옵고, 부처님의 자비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원만히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약사사 창건주이신 숙현당 윤봉순(묘음) 대보살님의 열반 49재를 맞이하여 대보살님께서 기도 성취의 황금백호사리 1과와 1000여과의 오색사리를 공개하고 보살님의 사리탑 재막 법회를 봉행하고자 하오니 불자님께서 도암하시어 자리를 빛내시고 소원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불교여래종 종정 석인왕

총무원장 명안 / 호법원장 범우 / 포교원장 범룡
약사사 주지 혜안 합장 / 안양 약사사 주지 연화 / 용인 성불사 주지 장일봉
인왕전교사회장 장세영 / 자문회장 유희정 / 지장회장 안순옥 / 합창단장 문난순

일 정
일시 : 2001년 양 4월 26일 (음 4월 3일) 목요일
1부 : 법회경 49재 법회 오전 10시
2부 : 사리참배 및 사리탑 재막식 11시
3부 : 중요 이웃 자비실천 경로잔치 12시 - (경로잔치 약사사 입구 무료급식소)

한국불교 여래종 본산
기도성취 영험도량

남한산성 약사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 2동 산7
☎ 031) 734-3205 fax 031) 735-3374